

## 이른 아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점을 돌아보신 다음날인 주체 98(2009)년 8월 17일 이른 아침에 있는 일이다.

보통강상점 너지배인은 상점앞에서 멈춰서는 차소리를 듣고 정문으로 달려갔다. 그는 뜻밖에도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만나뵙게 되었다.

깜짝놀란 그는 어려움도 잊고 그이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다.

환한 미소를 보내시며 그이께서는 지배인에게 전날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안내하라고 하시였다.

지배인은 의문을 안고 그이를 1 층에 있는 과일매대로 안내해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진렬대의 사과구역을 보시고 동행한 일군들을 향해 돌아보시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과를 어떻게 포장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여러가지 사과포장방법에 대하여 설명해드렸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저으시며 그 일군에게 과일은 포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다른 일군들은 과일을 신선하게 잘 보관하려면 포장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그이께 말씀드렸다. 그들은 모든 상품들을 포장하여야만 손님들의 편리를 보장한다고 보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대해 잘못을 느끼게 되었다.

그이께서는 과일진열매대를 돌아보시면서 과일은 성글게 진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상점복도의 현광등 조명이 밝지못한데 대해 지적하시고

## 김정은동지의 일화

지배인에게 상품을 나르는 승강기가 있는가에 대해 물으시였다.

지배인은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2 층으로 향하시였다. 계단을 오르시며 그이께서는 손님들이 리용하는 승강기가 없으면 량손에 상품구력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 층의 고기매대를 돌아보시면서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수있는 결함들에 대하여 지적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가지 고기와 고기제품을 보시고 칠면조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지배인은 5kg-14kg 된다고 대답을 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등에 큰 쌀배낭을 지고나르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하시면서 손님들이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곧 그들은 손님들의 편리를 생각하지못한데 대해 자책하게 되였다.

너지배인의 머리속에는 전날 장군님께서 찾아오시여 로인들이 상품구력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자면 힘들것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인민들에 대한 일군들의 복무정신이 부족한 표현이라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지배인은 그때야 비로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왜 이른 아침 상점을 찾아오셨는지 알게 되였다.

상점을 떠나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손님용 승강기에 대해 지배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인민들의 편리를 위해 시급히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지배인은 장군님의 말씀을 즉시 관철하시려는 그이의 고결한 충정심에 머리를 숙였다.